

신안제책사 천정심 씨

신안제책사(대표 안영일)의 천정심 사원은 제책 업무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신안제책사로 전직한 지 올해로 8년이 되어가는 데 이제는 회사가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진단다.

신안제책사에서도 어느덧 선배사원이 된 천씨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규모가 작아 여직원들이 남자들한테 적합한 일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안제책사는 생산공정이 자동화되어 자기 맡은 업무만 하면 되고 일도 매우 수월하다”라며 일에 대한 만족감을 피력한다.

천씨는 항상 웃으며 남보다 먼저 양보하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넉넉한 성격 때문인지 49살이란 실제 나이보다도 훨씬 젊어 보였다. 이것이 건강하고 세상을 즐겁게 사는 비결이라고 믿는 천씨는 두 아들에게도 “내가 살아오는 방식이 틀린 것 같지는 않다”며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늘 당부하고 있다. 책의 무게 때문에 제책 현장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신안제책사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손을 더 필요로 하는 양장 제본

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직원의 비율이 거의 50%에 이른다.

천 씨는 “여성들은 제책 작업을 할 때 책이 상하지 않게 책 아래에 종이를 덧대는 등 남성들이 간과하는 작은 부분까지 생각하는 섬세한 면이 많다”며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특히 강조한다. 또 “갑작스런 몇 십만부 이상의 대량 주문이라도 계획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작업을 끝낼 때는 한껏 보람을 느낀다”며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기독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절실하게 종교생활을 하는 천씨는 올해에도 1주일간의 새벽기도로 새해를 맞이했다.

“뭘 유별나게 바라는 것이야 있겠습니까? 가족들 건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치 않으면 되지요.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특별하게 부족한 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며 살 거예요” 천씨의 작지만 소중한 소망이다.

〈조갑준기자〉

“15년 경력 제책 베테랑”